

News Focus

Students 'sleeping on subway' remind us how important it is to help others

If you're like most commuters, you've had the experience of dozing off on the subway and missing your stop.

A group of eight students have taken this common situation and put it at the center of a feel-good video campaign.

The message sent by the campaign is simple: Don't be so consumed by your own life that you can't help others, for instance, by gently waking up a slumbering commuter.

The video shows students sleeping on the subway with a sign that asks people to wake them up at a certain station. It is titled "Wake Me Up at This Station."

To the surprise of some viewers, fellow commuters did step in and wake up the students with a gentle nudge.

The student-made video was part of a promotion for department store AK Plaza.

The video received some 60,000 views on YouTube within five days, with viewers calling it beautiful and moving.

Lim Jung-hwan, one of the members of the group, said the video aims to remind people to look out for each other.

"We thought the subway was a representative case of selfishness and careless individualism in today's society," said Lim.

"I'm pretty sure everyone has experienced missing a station because they were dosing off. We asked ourselves, 'What if a person told others which station he or she planned to get off at?' Would that make a difference?" explained Lim.

Another member, Hong Yeon-ju, said that it wasn't easy putting the project together.

"We wanted to say that this heartless society we seem to be living in, it's not such a bad place after all. But we have to care about those around us and help those in need," Hong said.

Commuter 통근자 / experience 경험 / doze off 졸다 / consume 소비하다 / for instance 예를 들어 / slumber 잠들다 / nudge 쿡 찌르기 / promotion 홍보 / moving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 remind 되새기다 / representative 대표하는 / selfishness 이기주의 / individualism 개인주의 / heartless 매정한

‘지하철에서 자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다

당신이 보통의 통근자들 중 한 명이라면,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을 놓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8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흔한 상황을 느낌 좋은 비디오 캠페인에 사용하였다.

캠페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남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너무 소모되지 말자 - 예를 들어, 잠든 통근자를 조심스럽게 깨워주자.

이 비디오는 사람들에게 특정 역에서 깨워달라는 신호를 가지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보여준다.

비디오의 제목은 “00역에서 깨워주세요.”

몇몇 시청자들에게는 놀랍게도 다른 통근자들은 다가서서 학생들을 가볍게 깨워주었다.

학생들이 만든 이 비디오는 AK플라자 백화점을 위한 홍보영상 중 하나이다.

이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5일 동안 60,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시청자들은 아름답고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한 회원인 임정환 씨는 이 비디오가 사람들에게 서로를 돌보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하철이 오늘날 사회의 이기주의와 배려가 없는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경우라고 생각했다,”고 임 씨가 말했다.

“모두가 한번쯤은 지하철 역을 졸다가 놓친 경험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디서 내린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고 임 씨가 설명했다.

다른 회원인 홍연주씨는 이 프로젝트를 함께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매정한 사회가 결과적으로 나쁜 곳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홍 씨가 말했다.

Honey Butter Chips: Four things to know

Anyone with a passing interest in mainstream Korean culture has by now heard of the Honey Butter Chip, a product by confectionery firm Haitai.

Many shops have sold out of the product, prompting people to hunt for the chip and vent their frustrations online when they can't find any.

Like it or not, the chip is a phenomenon for now, especially on the Internet. Here are four honey-and-butter flavored trends circulating on the Web right now, which may help explain the buzz surrounding the product.

1. There are conspiracy theories

Given the sudden success, many have offered theories as to how the chip became so popular.

Perhaps the most persistent accusation is that Haitai has deliberately sold out of the product to stoke more demand.

However, an official from Haitai told that despite working around the clock to produce the chip, the company has simply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demand.

2. 'One per customer, please'

Demand has been so overwhelming that some convenient stores have posted signs asking customers to buy only one bag each.

3. Celebrities are fawning

Park Ji-yoon, a former anchor on broadcaster KBS, shared a photo on her Instagram account of herself, holding a bag of Honey Butter Chips. "I can't believe myself for laughing and crying over one bag of chips," she wrote. "But they're so good."

4. Desperate times, desperate measures

Twitter user @Benedicito has received almost 1,500 retweets for his photo of homemade, honey-flavored, buttery potato chips.

"I went to at least two convenient stores, but I couldn't get them," he wrote.

"So I just bought regular potato chips and put honey and butter on them."

Another Twitter user responded, "You're a genius...I think I'll do the same instead of looking around!"

Prompt 부추기다 / phenomenon 현상 / circulate 돌다 / buzz 소문 / conspiracy 음모 / accusation 의혹 /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 demand 요구 / overwhelming 압도적인 / desperate 절망적인 / respond 응답하다 / genius 천재

허니버터칩에 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쯤 해태제과에서 만든 허니버터칩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많은 상점들에서는 품절이 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이 칩을 찾아 해태가 만들고 찾을 수 없을 때의 그들의 실망감을 온라인에서 터트리게 하였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칩은 특히 인터넷에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 이 상품을 둘러싼 소문을 설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네 가지 별꿀과 버터 맛이 나는 유행이 있다.

1. 음모설이 있다

갑작스러운 성공에 많은 사람들은 이 칩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기했다.

아마도 가장 꾸준한 의혹은 해태가 의도적으로 수요를 더 부추기기 위해 상품을 품절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태의 한 직원은 칩을 생산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요구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 '소비자 한 명당 한 봉지 씩'

요구는 너무 압도적이라 몇몇 편의점은 소비자들에게 한 봉지 씩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표지판을 걸어두었다.

3. 유명인들이 아낀다

박지윤 전 KBS 방송국 앵커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허니버터칩을 들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올렸다. “칩 한 봉지에 울고 웃는 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녀가 썼다. “하지만 너무 맛있다.”

4. 절망적인 시간, 절망적인 조치

트위터 이용자 @Benedicito 는 그의 직접 만든 꿀 맛이 나는 버터 감자칩 사진으로 1,500 건의 리트윗을 받았다.

“나는 적어도 두 개의 편의점에 갔지만 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가 썼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감자칩을 사서 꿀과 버터를 얹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천재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응답했다.

Entertainment

'Misaeng' soars in ratings

"Misaeng," a cable network tvN's Friday-Saturday drama is becoming immensely popular. The drama, which revolves around precarious intern workers at a trading company, soars in TV ratings, hitting over 5 percent of viewers' rating from its latest episode aired last week.

The impressive number surely evokes last year's "Reply 1994," which hit 11.9 percent in its last episode, the highest viewers' ratings ever among cable TV programs.

Based on cartoonist Yoon Tae-ho's online cartoon series, the 20-part drama version of "Misaeng," which can be translated as an incomplete life, tells the story of Jang Geu-rae, a 26-year-old man who tries to adjust to life as an office worker after failing to become a professional "baduk" (Korean name for the board game "go") player. It began airing on Oct. 17.

It looks clear that people in their 20s show the most explosive response to the drama as they can sympathize with protagonist Jang, a non-regular worker.

immensely 엄청나게 / viewer's rating 시청률 / translate 번역하다 / incomplete 불완전한 / non-regular worker 비정규직 / sympathize 동감, 공감

미생의 시청률이 솟구치다

케이블 채널 tvN의 금토드라마 미생이 엄청나게 대중화되고 있다. 종합상사의 위태로운 인턴사원을 그린 미생은 지난주 방송된 최근 방송에서 5 퍼센트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률이 솟구치고 있다.

놀라운 이 숫자는 케이블 프로그램 최고시청률인 11.9 퍼센트를 기록한 '응답하라 1994'를 확실히 떠올리게 한다. 만화가 윤택호의 온라인 카툰을 원작으로 한 20화로 이루어진 미생(불완전한 삶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은 바둑(보드게임 go의 한국 이름) 프로기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후 직장인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26살의 장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는 10월 17일부터 방송되었다.

이 드라마는 비정규직 주인공 장그래에 동감할 수 있는 20대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dy Lau coming to Mnet event

K-pop legend Seo Tai-ji will perform at the annual Mnet Asian Music Awards (MAMA) on Dec. 3 in Hong Kong, the organizing committee said Monday.

Shin Hyung-kwa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Korea's entertainment conglomerate CJ E&M, confirmed Seo's participation in MAM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Sangam-dong, western Seoul.

Since Seo made his debut as a leader of Seo Taiji and Boys in 1992, Seo has been considered a pop icon. The 42-year-old pop veteran recently released his ninth studio album. Shin added that Hong Kong's super star Andy Lau will participate as an award presenter.

"We are placing emphasis on inviting super star celebrities in greater China region into our awards ceremony this year. (Besides Andy Lau) we are also contacting with other Chinese super stars, and will be able to give more details later this week" he said. In MAMA held last year, legendary singer Stevie Wonder and Hollywood's celebrity Paris Hilton made guest appearances.

annual 매년의 / confirm 확인하다 / participation 참여 / contact 연락하다, 섭외하다 / celebrity 연예인

앤디 로가 엠넷에 온다

케이팝 스타 서태지가 12 월 3 일 홍콩에서 매년 열리는 MAMA 시상식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지난 월요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CJ E&M 의 임원 신형관은 서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에 서씨의 MAMA 참여를 확인했다.

서씨가 1992 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리더로 데뷔한 이래로, 서씨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다. 42 살의 베테랑 가수는 최근에 그의 9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신은 홍콩의 슈퍼스타 앤디 로가 시상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더 큰 중국시장에서 올해 우리 시상식에 슈퍼스타를 초대하도록 집중하고 있다.(앤디 로에 덧붙여) 우리는 또 다른 중국 슈퍼스타를 섭외 중이고, 이번 주 내로 자세한 사항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해에 열린 MAMA 에서는 가수 스티비 원더와 할리우드의 유명인사 패리스 힐튼이 게스트로 모습을 보였다.

Depp's drunken speech shocks audience

American actor Johnny Depp shocked guests at the Hollywood Film Awards in Los Angeles with a drunken speech that was aired on CBS.

Presenting the documentary award to Mike Myers's "Supermensch: the Legend of Shep Gordon," Depp, wearing dark glasses, slurred his words and was unsteady on his feet.

The network bleeped his speech twice, and then cut short his speech by switching to a clip from the film.

"Please welcome ... my good friend ... it's a real honor to pass this (award) to him. Shep Gordon," said a wobbly Depp, 51.

The top award went to Ben Affleck for his role in the thriller, "Gone Girl."

audience 관객 / drunken speech 취중 연설 / unsteady 가만히 있지 못하다 / bleep 삐 소리 / switch 바꾸다, 대체하다 / wobbly 기우뚱거리는

조니 뎀의 취중연설이 관객을 충격에 빠뜨리다.

CBS 를 통해 방송된 LA 할리우드 영화대상에서 조니덱이 최중연설로 손님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이크 마이어의 "슈퍼맨쉬 : 웹 고든의 전설"에 대한 다큐멘터리부문 시상 중에 조니덱은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어눌한 발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이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방송국은 두 번이나 그의 연설의 음성을 지웠고, 급기야 그의 연설을 중단하고 영화의 한 장면으로 대체하기까지 했다.

"반가워요... 나의 좋은 친구들... 이걸(상) 그에게 넘겨주게되어 대단한 영광입니다. 웹 고든." 51 세의 기우뚱거리는 조니덱이 말했다.

최우수상은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 연기한 벤 애플렉에게 돌아갔다.

Sports / Health

Olympic speed skating champ Lee Sang-hwa wins World Cup race

South Korean Olympic champion Lee Sang-hwa finished first in the second 500-meter race at 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SU) Speed Skating World Cup in Seoul.

Lee, the two-time Olympic gold medalist and world record holder, finished first among 21 skaters with a time of 37.99 seconds at Taeneung International Rink.

The Seoul competition is the second of seven World Cup competitions this season.

Lee had won both of the 500 meter races in the season's first World Cup held in Japan. Then the 25-year-old suffered her first loss at a World Cup since March 2013, clocking at 38.18 seconds, 0.13 second slower than Kodaira.

Lee won seven World Cup titles in the 500m last season and grabbed her second straight Olympic gold in the distance in Sochi, Russia, in February.

International 국제적인 / holder 보유자 / competition 경기 / suffer 고생하다 / loss 패배 / grab 움켜쥐다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 이상화, 월드컵 경기 우승

대한민국 올림픽 챔피언 이상화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스케이팅연합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열린 두 번째 500 미터 경주에서 처음으로 결승점에 들어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두 개 획득하였으며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상화는 태릉국제링크에서 21 명의 선수들 중 처음으로 37.99 초의 기록을 내며 경기를 끝냈다.

서울 경기는 이번 시즌의 일곱개의 월드컵 경기들 중 두 번째이다.

이상화는 일본에서 열린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월드컵에서 두 개의 500 미터 경주에서 우승하였다. 그리고 25 세의 이 선수는 코다이라보다 0.13 초 뒤늦은 38.18 초로 2013 년 3 월 이후로 월드컵에서의 첫 패배를 겪었다.

이상화는 지난 시즌 500 미터에서 7 개의 월드컵 타이틀을 우승하였으며 2 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그녀의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연속적으로 거머쥐었다.

More smokers seek gov't help to quit

An increasing number of smokers are seeking government help to quit smoking as it is moving to raise cigarette prices from January next yea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om September to October, 91,855 people registered with public health centers' smoking cessation programs nationwide. Last year, 60,475 people signed up during the same period.

The ministry believes its plan to raise the average price of cigarettes by 2,000 won brought about the 51.9 percent boost.

According to data of the ministry, around 44 percent of Korean men smoke, the highest rate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ound 25 percent of its total adult population smokes.

The government aims to lower the male smoking rate to 29 percent by 2020 and predicts that the price hike will cut tobacco sales by 34 percent.

In a ministry survey last month, 32 percent of respondents aged over 19 said they would quit smoking if prices went up as planned.

Quit 그만두다 / register 등록하다 / public health 보건 / cessation 중단, 중지 / nationwide 전국적으로 / boost 상승 / population 인구 / aim 목표로 하다 / male 남성 / respondent 응답자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다

늘어나는 수의 흡연자들이 담배가격이 내년 1월부터 오르면서 금연을 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91,855 명이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동안에는 60,475 명이 등록하였다.

정부는 담배의 평균 가격을 2,000 원 인상하는 계획이 대략 51.9%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믿는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약 44%의 한국 남성들이 흡연을 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약 25%의 성인 인구가 흡연을 한다.

정부는 남성 흡연률을 2020년까지 29%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격 인상이 담배 판매를 34%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달에 실시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19 세 이상의 32%의 응답자가 계획대로 가격이 인상되면 금연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 / Science

Sony confident of Korean console market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 (SCEK) President Kawauchi Shiro pledged to release more localized games to meet Korean game fans' expectations.

During G-Star 2014, the nation's largest game show held at BEXCO in Busan, the SCEK president said the company will act more aggressively to raise the popularity of console games amid the rapid changes in the Korean game market.

"Mobile games in the Korean market have seen a rapid expansion in recent years and we believe there are significant number of gamers who have turned to console games to seek unique entertainment such as intensive scenarios and a greater level of immersion," Kawauchi said.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business-to-customer sector of this year's G-Star show and had the largest exhibition booth in its history.

localize 지역화되다 / pledge 청원하다 / expectation 기대 /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 popularity 인기 / amid ~가운데 / significant 중요한 / intensive 응축된 / immersion 몰입

한국 콘솔 시장에서 소니가 자신감을 표하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CEK) 대표 가와우치 시로가 한국 게임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지역화된 게임을 출시하기를 청원했다.

부산 BEXCO 에서 열린 국가 최대의 게임쇼 G-Star 2014 가 진행되는 동안 SCEK 대표는 회사가 한국 게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 콘솔게임의 대중화를 키우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최근에 급속히 팽창하였고, 우리는 응축된 시나리오와 높은 몰입 정도와 같은 특별한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위해 콘솔게임으로 전환한 많은 게이머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카와우치가 말했다. 회사는 올해의 G-Star 쇼의 B2C 분야에 참가하였고,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전시 부스를 가졌다.

Samsung Electronics loses market share in mobile phones, TVs

Samsung Electronics Co.'s global presence in mobile phones and high-end TVs declined in the third quarter while its market share in DRAMs and displays rose, industry data showed.

Analysis of quarterly reports released by the tech company showed Samsung's market share in the IT mobile sector dipping 1 percentage point to 23.9 percent in the July-September period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numbers based on findings by Strategy Analytics, a global research and consulting firm, also showed that market share dropped 3 percentage points on an annual basis from last year's 26.8 percent.

The results come as Samsung has been losing ground, particularly in China, to cheaper rivals such as Xiaomi, Huawei and Lenovo.

global 세계적인 /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 decline 하락하다, 떨어지다 / analysis 분석 / compare 비교하다

삼성전자가 핸드폰과 텔레비전 시장의 점유율을 잃다.

삼성전자의 핸드폰과 최고급 텔레비전에서의 세계적 위치가 3 분기에는 떨어졌지만, DRAM 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올랐다고 산업 자료가 보여주었다.

기술 회사에 의해 발행된 분기 보고서의 분석은 전반기에 비교하여 7 월-9 월 기간에 IT 모바일 영역의 시장 점유율이 1 프로 하락한 23.9 퍼센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적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Strategy Analytics 의해 나온 이 숫자는 또한 작년 연말보고서의 26.8 퍼센트의 시장점유율로부터 3 퍼센트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사오미, 화웨이, 레노보와 같은 저가 라이벌, 특히 중국에게 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eatures

Book introduces hanok history

"Hanok, the Korean House," by Park Na-ni, wife of the Duksung School Foundation president, and Strategy Analytic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ives readers a peek into Yun's home,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hanok homes that exist today including the Jiwuheon (house of continuous learning), Simsimheon (house where the heart is found) and the Moto Hanok. Foreigners, as they pass by the Bukchon Hanok Village, can't help but wonder how the inside of a hanok looks, and how the furniture is arranged.

The authors, in "Hanok, the Korean House," have examined a variety of hanoks — not just the historical residences in which aristocrats lived — many of which have been improved and renovated to meet changes in the country's climate, as well as the residents' practical needs.

"My aim in this book is to expand readers' awareness of Korea," Park writes in the preface.

exist 존재하다 / pass by 지나가다 / furniture 가구 / arrange 배열하다 / variety 다양한 / historical 역사적인 / renovate 향상되다

한옥의 역사 소개 책

덕성학원재단 대표의 아내 박나니 씨와 서울대학교 교수 Robert 가 지은 "한옥, 한국인의 집"은 독자에게 윤 씨의 집 뿐만 아니라 지우현(지속적인 배움의 집), 심심헌(심장이 발견된 집), 모토 한옥과 같은 현존하는 많은 한옥을 엿보게 해 준다.

북촌한옥마을을 지나가는 외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옥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구들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궁금해 한다.

"한옥, 한국인의 집"의 저자들은 귀족들이 살았던 역사적 거주지만이 아니라, 지역의 날씨와 주민의 실용적 필요에 의해 향상되고 개조된 다양한 한옥들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의 나의 목표는 독자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박씨는 서문에 밝혔다.

Daelim Museum holds McCartney retrospective

On May 11, 1968, Linda McCartney became the first woman to land the Rolling Stone magazine cover with her portrait of Eric Clapton. She had made a name for herself as a photographer-slash-groupie while working at the Fillmore East concert hall, with work that featured moments in the lives of Aretha Franklin, Jimi Hendrix, Bob Dylan, John Lennon and Neil Young, among others. McCartney, first wife of English musician Paul McCartney, died in 1998 of breast cancer, leaving behind a broad body of work that reflected not only her life as a musician and photographer, but also as an animal rights activist and mother.

A retrospective of McCartney's photographs is on display at the Daelim Museum in Jongno, central Seoul, through April 26, 2015.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sections that illustrate the many modifiers that often accompanied her name, including one based on her work as an activist and vegetarian.

retrospective 회고전 / reflect 비추다 / photographer 사진사 / display 전시하다 / modifier 수식어 / accompany 동행하다 / activist 운동가 / vegetarian 채식주의자

대림 미술관에서 맥카트니 회고전이 열린다

1968년 5월 11일에 린다 맥카트니는 그녀의 에릭 클랩튼 사진으로 롤링 스톤 잡지의 커버를 장식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필모어 이스트 콘서트 홀에서 아레사 프랭클린, 지미 헨드릭스, 밥 딜런, 존 레논, 닐 영 등의 특징적 라이브 순간을 찍는 슬래시 그룹의 사진사로 유명해졌다.

영국 뮤지션 폴 매카트니의 첫 부인인 카트니는 음악가, 사진사 뿐만 아니라 동물권리운동가, 엄마로 비춰진 그의 넓은 욕신을 남기고 1998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매카트니의 사진 회고전은 2015년 4월 26일까지 서울 중심 종로에 있는 대림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운동가와 채식주의자를 포함하는, 종종 그녀의 이름이 동행하는 많은 수식어로 묘사된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다.

Business

One in 10 change jobs

One in four people who changed jobs last year were forced to do so due to massive layoffs and other reasons.

According to the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data compiled by Statistics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Bank of Korea, 24.9 million people had jobs in 2013. Among them, 2.6 million people said they had changed jobs within the same year. This means that one in 10 people changed their jobs.

When asked why they did so, 39.8 percent cited personal reasons while 19 percent said they were dissatisfied with working conditions.

However, 718,000 said they made the decision to change jobs against their will.

A total of 384,000 people were forced to change jobs due to layoffs, while 334,000 said that they had found new jobs when their contracts expired.

The low-income households were especially hit hard by the massive layoff. Among those in the bottom 20 percent of the income bracket, the number of people who changed jobs due to layoff recorded 65,000, or 2.5 times more than the previous year.

Force 강요하다 / massive 대규모의 / layoff 정리해고 / household 가정 / dissatisfied 불만족스러운 / condition 환경 / will 의지 / expired 만료된 / income 수입 / income bracket 소득층

10명 중 1명 이직하다

지난 해 이직한 4명 중 한 명은 대규모 해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직을 강요당했다.

한국 통계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490만 명의 사람들이 2013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 260만 명은 같은 해에 직업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는 10명 중 1명이 이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 39.8%가 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19%는 직업 환경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718,000명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이직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총 384,000명의 사람들은 정리해고 때문에 이직을 강요받았으며 334,000명은 그들의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가정은 특히 대규모 정리해고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소득층의 가장 낮은 20% 중 정리해고 때문에 이직을 한 사람들의 수는 65,000명이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CJ's bakery chain to open 60 stores in China

CJ Foodville signed an agreement with a Chinese company to open up to 60 outlets of its bakery chain "Tous Les Jours" in the Shandong area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Qingdao Daily News and Media, a joint venture between Qingdao Media Group and DC Group, signed the contract with CJ in Seoul.

"If we consider our contract as a marriage between the two companies, Tous Les Jours is our child. CJ Foodville will fully support Tous Les Jours to grow well," CJ Foodville CEO Jung Moon-mok said in a statement.

The bakery chain's strategic move is to expand its presence in the Chinese market, a company official said.

It will become the seventh province in China in which the bakery chain has opened outlets. The company now runs some 60 outlets in China.

The franchise runs 157 outlets in seve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greement 동의서 / venture 사업 / contract 계약 / marriage 결혼 / fully 충분히, 완벽히 / strategic 전략적인 / presence 존재

CJ 베이커리, 중국에 60 곳 매장 개장

CJ 푸드빌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회사와 산둥 지역에 60개의 베이커리 체인 “뚜레쥬르”를 개장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칭따오 미디어 그룹과 DC 그룹의 공동 사업인 칭따오 데일리 뉴스와 미디어는 서울에서 CJ와 함께 계약에 서명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계약을 두 회사 간의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뚜레쥬르는 우리의 자식이다. CJ 푸드빌은 뚜레쥬르가 잘 성장하도록 충분히 도울 것이다,”라고 CJ 푸드빌 정문목 CEO가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이 베이커리의 체인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중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한 회사 직원이 말했다. 이 베이커리 체인이 매장을 여는 중국에서의 일곱 번째 지역이 될 것이다. 이 회사는 현재 중국에서 약 6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15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ociety

Armed man arrested near White House, again

The U.S. Secret Service on Wednesday arrested a 41-year-old man after finding weapons and ammunition in his car parked near the White House.

Authorities arrested Iowa man R.J. Kapheim for possession of an unregistered firearm after finding a hunting rifle, dozens of rounds of ammunition and a knife in the trunk of his vehicle.

The arrest came after Kapheim approached uniformed officers and told them that he had been sent by someone in Iowa to the White House. The officers found him suspicious, searched his car upon his consent, and ended up finding the weapon.

The Secret Service has been under fire for a string of security breaches. In September, Omar Gonzalez successfully climbed over the White House fence with a knife and made it deep into the mansion.

Authorities seized Kapheim's car and took him for further questioning, the New York Times reported.

arrest 붙잡히다 / possession 소지, 소유 / unregistered 미등록 / vehicle 자동차, 차 / suspicious 용의자 / weapon 무기 /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백악관 근처에서 무장괴한이 다시 붙잡히다

미국 첩보기관이 수요일에 백악관 근처에 주차된 차에서 무기와 탄약을 발견한 후 41세의 차 소유주 남자를 붙잡았다.

기관은 사냥용 총, 12여개의 탄약과 칼을 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후, 아이오와 출신 R.J. Kapheim를 미등록 무기 소지 혐의로 붙잡았다.

체포 후에 Kapheim은 경찰관에게 다가왔고 그들에게 아이오와에서 백악관으로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동의 하에 그의 차를 수색하였고 마침내 무기를 찾아내었다.

첩보기관은 연이은 보안 위반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9월에는 Omar Gonzalez가 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백악관 펜스를 넘어 저택 깊숙히 들어왔다.

기관은 Kapheim의 차를 압수하고 심문을 위해 데리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보고하였다.

Six-year-old is world's youngest IT technician

A six-year-old boy from the United Kingdom has become the world's youngest Microsoft-certified computer technician, Huffington Post said.

Ayan Qureshi accomplished the feat when he passed the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exam at Birmingham City University. The exam, according to Microsoft's website, "validates IT professional and developer technical expertise through rigorous, industry-proven, and industry-recognized exams."

Qureshi's innate knack for computers was discovered by his father when the boy was three.

Thriving on trainings at a home lab made by his father, the young prodigy said the studying was "difficult but enjoyable."

The young Qureshi hopes to establish a Silicon Valley in the United Kingdom.

exam 시험 / developer 개발자 / expertise 전문 기술 / rigorous 철저한, 엄격한 / thriving 번영하는, 늘어가는 / prodigy 영재

6살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IT 기술자

영국 출신의 6살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기술자가 되었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전했다.

Ayan Qureshi는 버밍엄시티 대학에서 열린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시험은 엄격하고, 산업에서 증명되었고, 산업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해 IT 전문성과 향상된 기술 전문가를 가리는 시험이다.

컴퓨터에 대한 Qureshi의 타고난 재주는 이 소년이 3살이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발견되었다.

아버지가 만든 가정실험실에서 연습이 늘어갔고, 어린 영재는 공부는 "어렵지만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린 Qureshi는 영국에서 실리콘 벨리를 창립하는 것이 꿈이다.

Story

If Thou Must Love Me

If thou must love me, let it be for nought

Except for love's sake only. Do not say

"I love her for her smile--her look--her way

Of speaking gently,--for a trick of thought

That falls in well with mine, and certes brought

A sense of pleasant ease on such a day"—

For these things in themselves, Beloved, may

Be changed, or change for thee,--and love, so wrought,

May be unwrought so. Neither love me for

Thine own dear pity's wiping my cheeks dry,--

A creature might forget to weep, who bore

Thy comfort long, and lose thy love thereby!

But love me for love's sake, that evermore

Thou may'st love on, through love's eternity.

Thou 당신 / nought 0, 영 / except 제외하고는 / sake 이유 / gently 다정하게 / trick 장난, 속임수 / certes

틀림없이, 분명히 / pleasant 기분좋은 / thine 당신의 것 / wiping 닦다 / cheek 볼, 뺨 / bore 지루하게 하다 / thy

당신의 / comfort 안락 / thereby 그것 때문에 / evermore 항상 / eternity 영원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딱 목적을 갖진 마세요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미소와---외모와---부드러운 말씨가 맘에 들어
또는 재치 있는 생각이 나와 잘 맞아 사랑한다든가
그런 날은 확실히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든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자체는 임이여, 변할 수 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도 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은
깨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내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위안을 오래 받으면 우는 것조차 잊어버려
당신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저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을 통해
당신이 언제까지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The Arrow and the Song

I shot an arrow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so swiftly it flew, the sight
Could not follow it in its flight.

I breathed a song into the air;
It fell to earth, I knew not where;
For, who has sight so keen and strong
That it can follow the flight of song?

Long, long afterward, in an oak
I found the arrow, still unbroke;
And the song, from beginning to end,
I found again in the heart of a friend.

- Henry Wadsworth Longfellow-

Arrow 화살 / swiftly 신속히, 빨리 / breathe 호흡하다, 숨쉬다 / keen 예리한 / afterward 나중에, 후에 / unbroken
중단되지 않은

화살과 노래

하늘 우러러 나는 활을 당겼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었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그렇게도 빨리 나니
날아가는 그 화살을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하늘 우러러 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땅에 떨어졌었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눈길이 제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나는 보았다.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있는
화살을,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동무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